

2014. 1. Vol 226

충북의정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충청북도의회

<http://assem.cb21.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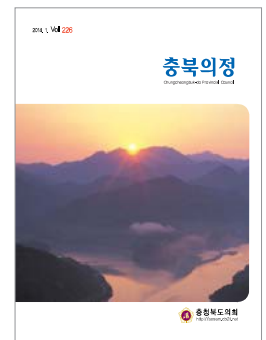
충북의정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2014. 1. Vol 226

Contents

- 04 신년사
- 05 2014년 의회 운영계획
- 06 충청북도 · 충청북도교육청, 2014년도 새해 예산
- 08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 09 도의회, 충청북도 · 도교육청 무상급식 중재
- 10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 노력(규탄대회 · 결의문)
- 12 현안 해결을 위한 공청회
- 14 되돌아 본 2013년 의정활동
- 16 상임위원회 활동
- 23 주요 처리의안
- 26 대집행부 질문 · 답변
- 28 의정활동 이모저모
- 30 의원논단
- 31 의정일기



보은 삼가저수지와 형제봉 일출
정광의 (前) 한국사진작가협회
청주지부장 제공

- 발행일 2014년 1월
- 발행인 충청북도의회 의장 김광수
- 주 소 (우)360-76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 발행처 충청북도의회
- F A X (043) 220-5119
- 홈페이지 <http://assem.cb21.net>
- 전화 (043) 220-5123
- 구독신청 「충북의정」 구독을 희망하시는 도민께서는 상기의 우편 주소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오년 새해 첫날

甲午年 새해 새아침
천리마의 기상으로
불게 떠오르는 심장하나
수혈을 시작한다

대동맥의 문 열고
새로운 세상에
새로운 피 수혈하는
장엄한 순간

꿈꾸는 자여 일어나라
가장 먼저 그대 가슴에
불꽃 하나 품어라
어두운 곳 밝혀라
차가운 곳 데워라
먼 미세혈관까지 전하라

이웃과 이웃 손 맞잡고
뜨거운 마음 전하라
지난일 들추지 말고
화해와 용서로
사랑을 노래하라

서로가 서로의 이름
부르는 것만으로도
우리 행복하지 않은가
붉은 희망으로 수혈하는
甲午年 새해 새아침



심억수

- 충북 괴산 출생
- 충북 문예한국 등단
- 충북 시집 [물 한잔의 아침], 단상집 [여물지 않은 곡식은 버려진다]
- 충북 중부문학회, 충북시사랑회장 역임
- (현) 청주문인협회장

충북도민의 밝은 빛이 되겠습니다



김 광 수 의장

기대와 희망을 담은 2014년 새아침의 밝은 태양이 힘차게 떠올랐습니다.

갑오년(甲午年) 새해를 맞아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충북의 곳곳마다 발전의 고동이 울려 퍼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는 제9대 충청북도의회와 민선 제5기 충북도정이 마무리 되는 뜻깊은 해로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해야 할 일이 많은 해가 될 것입니다.

처음 의사당에 들어서던 때의 초심을 잊지 않고 그동안 축적된 의정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회 본연의 권한과 책임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고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의회는 먼저, 영충호 시대를 열어 갈 충북의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겠습니다.

둘째, 소통의 시대를 넘어 융합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셋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넷째, 향후 제10대 의회가 성숙한 의회 문화의 기반 위에 출범할 수 있도록 견고한 징검다리를 놓겠습니다.

다섯째, 오로지 도민만을 위한 반듯한 의회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동안 충청북도는 밝은 빛을 보기 위해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이제 도운(道運) 상승의 기운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할 길은 하나입니다.

을 한해 정도(定都) 이래 찾아온 최고의 기회들을 현실화 하고 충청북도가 대한민국의 더 큰 번영의 진원지가 될 수 있도록 160만 도민의 힘을 하나로 결집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충북 전역에 희망가가 울려 퍼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새해에는 묵은 해의 고단했던 물굽이를 다 비워 버리고 밝은 희망의 물살을 힘차게 저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희 충청북도의회가 도민의 대변자이자 진정한 일꾼으로서 여러분의 고난과 영광의 자리에 항상 함께 있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갑오년 새해 아침

충청북도의회 의장

김광수 드림

‘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 구현’에 역량 집중

소통과 융합의 ‘영충호 시대’ 주역 역할 기반 구축 노력

충청북도의회는 갑오년 새해에도 도민들이 제9대 의회에 보내준 격려와 기대를 가슴 속 깊이 새기며 도민의 복지증진과 충북 발전을 위해 모든 힘과 의정역량을 결집시켜 나갈 방침이다.

특히 영충호 시대를 이끄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확고한 기반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면서 오는 7월 탄생하는 통합청주시가 중부권 핵심도시로 자리매김해 충북 발전의 모멘텀이 되도록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 소통을 넘어 융합의 시대를 열기 위해 지역 곳곳의 힘과 비전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매개체가 되도록 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의회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도민의 기대와 열망을

반들어 타 시·도의회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공존하는 상생(相生)의 틀을 마련하는데 온 힘을 쏟기로 했다.

그리고 향후 제10대 의회가 성숙한 의회문화의 기반 위에 출범할 수 있도록 대화와 타협, 소통과 이해 속에 합리적인 민주주의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원칙을 준수하며 정도(正道)를 걸어 나갈 것을 새롭게 다짐하고 있다.

도의회는 새해에도 도민만을 위한 반듯한 의회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당리당략에 좌우되지 않고 도민의 봉사자로서 도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노력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2014년도 연간 상반기 의회운영 계획

월 별	회 기	주요 예상 안건	비 고
1월 임시회 (제326회)	1.16(목)~1.24(금) (9일간)	□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안건심의	• 설연휴(1.30~2.1)
3월 임시회 (제327회)	3.12(수)~3.20(목) (9일간) 누계 18일	□ 안건심의	• 삼일절(3.1)
4월 임시회 (제328회)	4.8(화)~4.18(금) (11일간) 누계 29일	□ 제1회 추경(도, 교육청) □ 안건심의 □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6월 임시회 (제329회)	6.10(화)~6.20(금) (11일간) 누계 40일	□ 안건심의 □ 현안 및 주요사업 현장 시찰	• 지방선거(6.4) • 현충일(6.6)

※ 하반기 의회일정은 새로운 의회 구성에 따라 신규 수립



▲ 지난해 11월 12일부터 12월 20일까지 39일 간 제325회 정례회를 열고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14년도 예산안」 등 현안을 심사 의결했다.

충청북도 2014년도 새해 예산

영충호 시대·서민복지·성장산업 육성 중점

충청북도 3조 5,574억원 확정… 49건 37억원 삭감

충청북도의회는 지난해 12월 제325회 정례회에서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의 새해 예산안을 확정했다.

도의회는 '영충호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대규모 지역 현안 사업 추진과 지역 간 균형발전, 치매·중풍없는 충북과 9988 행복지킴이 사업 등 서민복지 확대, 미래 성장산업 육성, 건전재정 운영 등에 중점을 두고 충북도의 새해 예산안을 심의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충청북도의 총 예산 규모(수정예산 포함)는 3조 5,574억 3,602만 9천원으로 전년 대비 2,193억 5,522만 9천원이 증액됐다. 이중 일반회계는 3조 639억 8,733만 9천원으로 2,061억 7,783만 5천원이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4,934억 4,868만 8천원으로 136억 2,757만 1천원 증액됐다.

일반회계는 세입에서 3개 사업에 4억 5,017만 7천원

2014년도 충청북도 예산

(단위 : 천원)

회 계 별	제출예산액	계수조정결과		확정예산액
		증(예비비)	감	
총 계	3,558,213,004	2,878,210	3,655,187	3,557,436,027
일반회계	3,064,437,516	2,678,210	3,128,387	3,063,987,339
특별회계	493,775,488	200,000	526,800	493,448,688

을 삭감해 예산액을 3조 639억 8,733만 9천원으로 했고, 세출은 44개 사업에 31억 2,838만 7천원을 삭감했다. 세입에서 삭감된 어린이집 확충 사업비 등 3건 4억 5,017만 7천원을 제외한 26억 7,821만원은 예비비로 조정했다.

특별회계는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 인센티브 사업비 2억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조정하고 충북도립대학운영 특별회계에서 관사임차료 등 총 4건에 3억 2,680만원을 삭감했다.

도의회는 심의 과정에서 부실한 운영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시의성에 중점을 두고 규정 미충족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했다.

특히,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등 국제행사의 경우에는 행사성 경비의 낭비를 줄이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총사업비로 국제행사 허가를 받고 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농업기술원의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장 식물 공장 운영 사업비 등 행사관련 예산을 별도로 계상한 것은 방만한 운영임을 지적하며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촉구했다.

또한 계수조정 과정에서 조건부로 승인한 제30회 수안보 온천제 지원사업은 도내 전체 관광지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과 자연학습원 체험시설 확충 정비 사업은 위험요소의 철저한 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예산을

승인했다. 예측할 수 없는 사업에 대비해 편성하는 POOL예산의 규모가 지나치게 클 뿐만 아니라 일부 부적정한 용도로 사용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학술용역 등 POOL예산의 규모도 줄였다.

이와 함께 진천·음성의 혁신도시지구의 어린이집 확충사업은 향후 제반여건이 충족되었을 때 관련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전액 삭감했다.

도의회는 예산안 심사에서 “향후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재정 환경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과다 계상된 사업과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 특히 사전절차가 미비된 사업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며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일부 또는 전부를 삭감했다”고 삭감 사유를 밝혔다.

충청북도교육청 2014년도 새해 예산

복지 확대·학교교육 내실화 등에 역점

도교육청 1조 9,934억원 확정… 26건 107억원 삭감

충청북도교육청의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1조 9,934억 2,831만원으로 전년대비 288억 5,061만 8천원이 증액됐다.

도의회는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과 무상급식 지원 등의 교육복지 확대, 학교교육 내실화 분야 등에 중점을 두고 도교육청의 새해 예산안을 심사했다. 도의회는 예산안 심사에서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해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했다. 특히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과다하게 계상된 사업, 사업효과가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일부 또는 전부를 삭감했다.

심사결과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은 세입예산 1개 사업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예산 (단위: 천원)

회 계 별	제출예산액	계수조정결과		확정예산액
		증(예비비)	감	
계	2,001,233,345	2,955,798	10,760,833	1,993,428,310
특별회계	2,001,233,345	2,955,798	10,760,833	1,993,428,310

에 78억 503만 5천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은 홍보영상물 제작 등 25개 사업에 29억 5,579만 8천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했다.

삭감된 주요 내용은 홍보영상물제작 6천만원, 장애인 고용부담금 2억 5천만원, 고등기초학력프로그램운영비 2억 9천만원, 메신저시스템구축비 3억 5천만원, 텐트 및 테크설치비 3억원 등이며, (가칭)진천 단설유치원 설립비 78억 503만 5천원은 세입에서 감액 조치했다.

주요사업 분석 · 대안제시… 강도 높은 심사

집행부에 359건 (시정 152 · 건의 207) 조치 요구

충청북도의회는 정례회 기간인 지난해 11월 13일부터 24일까지 12일간에 걸쳐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 도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및 출연 · 출자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9대 의회 마지막인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상임위 소속 의원들은 그동안 축적된 업무역량을 바탕으로 각종 추진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있는 감사를 벌였다.

도의회는 도정 및 주요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총 1,319건의 감사 자료를 요구했다. 감사자료 분석과 연구,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152건의 시정·개선 요구사항과 207건의 건의 · 촉구사항 등 모두 359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12월 20일 제32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결과보고서를 의결한 후 집행부에 시정을 요구했다.

상임위원회별 주요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의회사무처 소관에서는 청소년의회교실 사업의 확대추진과 의원 대외교류(연수)시 각 상임위원회에 교류계획 통보 등 2건을 건의했다.

정책복지위원회는 성별 분리통계 구축 등을 통한 성인지 예산제도의 원활한 시행 노력,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실적 미흡으로 운영을 폐지하고 신고사항을 일반 민원으로 처리 검토 등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48건, 비전문부서의 건설공사 추진에 따른 문제점 보완을 위한 기술직 공무원 중심의 TF팀 구성 등 건의 및 촉구사항 33건이다.

행정문화위원회는 도청 청사시설 확충을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 디지털 영상관 구축 운영에 시민의 접근성이 쉽도록 개선할 것, 공무원 비리

예방에 대한 사전교육 및 네트워크 체계를 강화할 것 등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45건,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대상별 특화 안전교육 실시 등 건의 및 촉구사항 15건이다.

산업경제위원회는 각종 사업추진 시 지역 간, 읍 · 면 간 균형지원을 통한 균형발전 노력, 소규모로 농사짓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다양한 판로개척과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것 등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19건, 과학벨트 기능지구 발전방안과 에코폴리스 활성화 대책 마련 등 건의 및 촉구사항 63건이다.

건설소방위원회는 도로 관련 사업예산 과다책정, 의료기기보육센터 입주업체 요건강화 및 지원, 환경보전기금 환경개선사업 지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심각하니 보호구역을 축소 노력할것 등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10건, 하천 미불용지의 조속한 보상계획 수립 등 건의 및 촉구사항 42건이다.

교육위원회는 「충청북도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준수, 학생복지예산 편성 지도, 교원 학습연구년제 내실 있는 운영으로 선발기준의 투명성 · 공정성 확보 등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30건, 교육정책 현안관련 토론회 활성화와 학교 비정규직 근무여건 개선 등 건의 및 촉구사항 52건을 조치 요구했다.

각 위원회별 지적 건수

위원회	계	시정 · 개선 요구사항	건의 · 촉구사항
계	359	152	207
의회운영위원회	2	0	2
정책복지위원회	81	48	33
행정문화위원회	60	45	15
산업경제위원회	82	19	63
건설소방위원회	52	10	42
교육위원회	82	30	52

‘무상급식 통큰 합의’ 충북도의회 중재

충청북도-충청북도교육청, 예산분담 최종 합의

올해도 충북지역 초·중·특수학교의 무상급식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12일 2014년도 초·중·특수학생 무상급식 예산분담을 김광수 충청북도의회 의장의 중재 의견대로 시행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무상급식 합의는 대승적 차원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도민걱정을 불식시키고자 하는 이시종 도지사와 이기용 교육감의 통 큰 결단으로 이뤄졌다. 또한 김광수 의장은 올해도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분담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지자 중재에 나서 원만한 합의를 유도해 냈다.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2010년 11월 초·중학생 무상급식 전면 실시 합의 이후 3년째 무상급식을 시행해 왔으나 매년 급식 분담예산에 대해 이견을 보였고 이로 인해 도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에 김광수 의장은 매년 반복되는 무상급식 논란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초부터 투명하고 공정한 산출기초를 담은 「무상급식 예산분담 매뉴얼」 마련을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에 주문했다.

이후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은 충북도의회에 주관 하에 10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됐다.

양 기관의 합의는 저소득 학생들의 심리적 부담과 학부모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급식을 통한 학생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도민의 신뢰를 증진시켜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무상급식 근본 취지를 살려 낸 것이라는 평가다.

무상급식비는 식품비·운영비·인건비 등 3개 분야로 구분되는데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은 식품비의 경우 2013년도 기준액에 생활물가지수와 신선식품물가지수의 평균지수를 적용해 산출기로 합의했다.



▲ 지난해 11월 12일 김광수 의장의 중재로 이시종 도지사와 이기용 교육감이 무상급식을 합의하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운영비는 2013년도 기준액에 소비자물가지수와 연료비상승률의 평균지수를 적용기로 했다.

양 기관의 갈등 요인 중 하나였던 인건비는 2013년도 기준액에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적용해 산출하되 교과부에서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에 급식종사자 인건비가 포함돼 지원될 경우 분담대상 총액급식비에서 제외토록 했다.

특히 현행 수당은 모두 포함하되 신설 요구중인 위험근무수당은 교육청 노조 협상결과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내년도 추경에 반영기로 했다.

정부지원 총액인건비는 올 1월에 확정돼 시·도 교육청에 배분되며 양 기관은 총액인건비 내에 급식종사자 인건비 포함 여부 및 규모 등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로 도출된 매뉴얼은 매년 반복됐던 무상급식 논란을 종식시키는 기준으로 적용된다.

도의회는 “향후 도와 교육청 양 기관과 협조해 고품질의 건강한 무상급식을 제공함으로써 학생과 도민에게 신뢰받는 교육복지를 실현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충북 피해 커진다”

도의회, 시민단체와 규탄대회 등 저지 노력
SK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즉각 철회 요구

우려했던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충청북도의회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규탄대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의회는 최근 정부가 SK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을 허용한 것을 수도권 규제완화 시발점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12월 26일 균형발전 지역분권 충북본부와 함께 충북도의회 청사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특히 도의회는 그동안 많은 논란 속에서도 이전 정부가 SK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을 허용하지 않았는데 박근혜 정부가 이를 허용한 것은 지역발전정책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개탄하고 즉각적인 증설 철회를 요구했다.

도의회는 SK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예정지가 상수원보호를 위한 특별대책지역이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자연보전권역이어서 수도권시민의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대규모 공장 증설을 허용하는 것은 수도권 환경보전의 최후의 보루를 정부 스스로 무너뜨린 것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가 특정기업을 위해 환경규제마저 적극적으로 풀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앞서 도의회는 지난해 11월 5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투자활성화 명분으로 추진 중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즉각 중단과 선(先)지

역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도의회는 “최근 정부가 투자활성화 명분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또 다시 수면위로 끌고 나오면서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SK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철회촉구 결의문

우리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추진을 기필코 막아내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할 때까지 뜻을 같이하는 모든 세력을 규합해 강력히 싸워 나갈 것을 엄숙히 결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지속가능한 수도권관리정책을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비수도권이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추도록 국가균형발전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지방분권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라

2013년 12월 26일

충청북도의회 ·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결의문

최근 정부는 투자활성화를 명분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또 다시 수면 위로 끌고 나오면서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가속화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고 지역이 중심이 되는 균형발전 정책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160만 충청도민들과 함께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이제 그만하고 지방과 수도권에 균형을 이루는 정책을 즉시 추진하라

하나, 지역붕괴를 초래하는 수도권 접경지역 미니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계획을 철회하라

하나,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2013년 11월 5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 11월 5일 충북도청 브리핑 룸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결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농업인 소득안정대책 마련 요구

쌀 목표가격 현실화 촉구대회

충청북도의회는 지난해 11월 27일 충북도청 신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정부에 농업인의 생활안정 및 실질소득 보장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도의회는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당 등 정치권에 쌀 생산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쌀 목표가격을 상향하고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조례안」을 조속히 처리해 쌀 시장 개방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표명과 관련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 11월 27일 도의회 현관 앞에서 쌀 목표가격 현실화와 소득안정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쌀 목표가격 현실화와 농업인 소득안정 대책 마련 촉구문

충청북도의회는 농업인에게는 실질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국민에게는 안정적인 가격으로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쌀 생산비 인상과 물가인상분을 반영하여 쌀 목표가격을 현실화하고 기 제시한 쌀 목표가격 변경동의안을 철회하라

하나, 국회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하나, 쌀 시장 개방의 유예기간이 2014년 말로 종료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관련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

2013년 11월 27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인권보장 · 예술권리선언 조례 공론화

행정문화위, 각계 의견 청취 내실화 도모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김희수)는 지난해 11월 18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와 「충청북도 예술권리선언 운용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잇따라 개최했다.

김희수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인권보장 공청회에서 김형근 의원의 조례안 발표에 이어 임성재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위원장, 이은규 인권연대 슝 대표일꾼, 엄태석 서원대학교 교수, 정효진 충북도 자치행정과장 등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들은 “인권조례 제정은 환영하지만 토론과 공론화를 거쳐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충북도의 정신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은 강행규정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

같은 날 오후 열린 「충청북도 예술권리선언 운용 조례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정지숙 의원이 조례안을 발표하고 박현진 충북예총 회보편집장, 김승환 · 진익송



▲ 지난해 11월 18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공청회를 개최했다.

충북대 교수, 장화진 충북도 문화예술과장이 참석해 토론의 장을 펼쳤다.

이들은 “충북 예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예술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이 꼭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또 이 조례 제정이 중앙정부와 중앙문화에 예측되지 않고 충북예술의 초석으로서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동조합 자생력 강화 방안 모색

산업경제위, 육성·지원 조례 검토



▲ 지난해 12월 9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유관기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정현)는 지난해 12월 9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협동조합 관계자와 관련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북도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공청회는 충북도내 협동조합의 건전한 육성과 생산적 복지확충, 지역공동체 재건,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등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현 위원장이 사회를 맡고 김도경 의원이 주제발표를 했다.

김성진 충북화훼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박종희 사회협동조합 협동조합친구들 상임이사, 이인선 충북사회적경제영센터 팀장, 조규호 서원대 교수, 허경재 충북도 경제정책과장이 공술인으로 참석했다.

김성진 이사장은 “자금 지원을 통한 협업화로 자생력 강화”를 주장했고 박종희 상임이사는 ‘협동조합 연합회를 협의회로 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조규호 교수는 ‘기금마련 필요성’ 등을 요구했다.

허경재 과장은 “자금지원의 경우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진흥자금 이용과 다양한 세금 감면 또는 면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위한 공청회

충북 자율방범대 활성화 방안 모색

건설소방위, 행·재정적 지원 등 의견 제시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이광진)는 지난해 11월 29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도내 방범대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북도 자율방범대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임현경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 공청회에는 김용희 충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창식 충북도자율방범연합회 회장, 전진하 청남자율방범연합대장, 이영우 중앙경찰학교 교수, 유근창 청주상당경찰서 계장, 정효진 충북도 자치행정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용희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원을 통한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행정적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창식 회장은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행·재정적 지원을 요구했다. 전진하 청남자율방범연합대장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지난해 11월 1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충청북도 자율방범대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가능한 수준의 선행적 지원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근창 계장은 "경찰에서 예산을 지원하기에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면서 자구노력을 통한 활성화 대책 마련을 주장했다.

이영우 교수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위험도에 따른 상해보험 가입 등의 지원책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 제정

교육위,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 수렴



▲ 지난해 12월 19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 제정에 앞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상필)는 지난해 12월 19일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 제정에 앞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박상필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공청회에서 이광희 의원이 이 조례안에 대한 추진과정과 주요내용을 설명하

고 엄기영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권두섭 여는법률사무소 변호사, 김미경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학교비정규직본부 충북지부장, 오세경 도교육청 학교직원담당 사무관이 공술인으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교육감이 학교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용자에게 해당한다는 규정과 근로자 복무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각급 기관의 장이 이를 준수하고 생활근거지를 고려한 전보 규정에는 별다른 이견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정원을 현재 채용된 인원보다 적게 책정할 경우 오히려 정리해고의 형태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과 전보 시에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나타냈다.

또 학교비정규직 근로시간을 교직원과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과 사립학교 근로자들도 이 조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등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도민을 섬기는 열린의회, 일하는 의회 실현

지난 한해 충청북도의회는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이라는 궁극적 지향점을 향해 쉼 없이 달려왔다.

‘덕으로 도민을 높이 섬긴다’는 이덕송민(以德崇民)의 뜻을 늘 가슴에 품고 제9대 후반기 의회 출범 시 약속했던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일하는 의

회’실현을 위해 모든 힘과 역량을 쏟아 부었다.

출범 4년차를 맞아 장년기에 들어선 제9대 충북도의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 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각 분야별 2013년도 의정활동을 정리한다.

수도권 규제완화 적극 대응

충북의 발전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를 요구하면서 적극 대응했다.

도의회는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의 붕괴를 가속화시키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변화의 의지를 정부 정책에 반영해줄 것을 중앙부처에 강력히 요구하는 등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 노력을 기울였다.

과학벨트 원안사수... 국가산단 요구

도민의 굳은 의지와 결집으로 이뤄낸 과학벨트 기능지구를 무용지물(無用之物)로 만드는 과학벨트 수정안에 맞서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시민단체, 지역 국회의원 등과 함께 결의대회를 개최해 수정안에 대한 충청인의

분노와 원안사수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

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육성 종합대책’에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취득세율 영구인하 강력 저지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명목으로 추진한 ‘취득세율 영구인하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충북도의회는 ‘취득세율 영구인하 철회 요구’ 성명을 발표했다.

도의회는 성명에서 취득세가 시·도세임에도 불구하고 추진 과정에서 지방정부를 아예 배제시킨 것은 정부

가 지역민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것으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처사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충북도의회는 취득세 인하 정책에 대한 확고한 반대의지와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중앙부처에 요구했다.

통합청주시 예산 확보 전방위 노력

청원·청주 통합에 필요한 국비예산 확보에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쳤다.

정부가 대선공약 등 당초 약속에도 불구하고 통합에 필수적인 예산을 책정하지 않자 충북도의회는 지난해 10월 1일

청주시·청원군의회,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와 함께 세종시 정부청사 총리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총리실을 방문, 국비 반영을 강력히 요구했다.

주변국과의 다양한 외교활동

천편일률적인 우호교류의 틀을 벗어나 의원 외교의 새장도 열었다.

김광수 의장은 지방의회 의장으로서 국내 최초로 중국 북경 외교학원에서 특강을 실시, 미래 한·중 외교의 주역이 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지난 3월에는 베트남 빈푹성 의회를 방문해 도내 우수 기업 판로개척 및 유대를 강화하고 충북도와 빈푹성의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충북기업과의 교류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협약을 이끌어 냈다. 또 중국 흑룡강성과 길림성을 방문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예술문화 교류확대 방안을 협의하는 등 민간외교에 앞장섰다.

도정 협력·견제·감시 역할 충실

도정에 적극 협력함은 물론, 견제와 감시의 본연의 역할에도 충실했다.

올 한해 오송 화장품·뷰티 박람회,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 등 굵직굵직한 국제행사가 충북 역사의 한 페이지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충북도의회는 충북의 비상을 견인할 국

제행사의 성공 개최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발품을 팔며 홍보에 전력을 쏟았다. 견제와 감시의 끈도 늦추지 않았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대집행부질문 등을 통해 도정에 도민의 마음이 담겨 있는지 따져 묻고, 재정의 효율을 높이며 알뜰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도 꼼꼼히 살폈다.

특위 구성해 지역균형발전 모색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역 균형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특위를 주축으로 도내 지역균형발전 사업이 계획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했다.

특히 남·북부권 지역균형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토록 했으며, 연구용역을 통해 도내 균형발전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도의회는 충북의 전역이 고루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무상급식 합의 도출 등 조정자 역할

무상급식 분담을 적극 중재하는 등 기관 간 이견을 조정했다.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매년 갈등을 빚어왔던 무상급식비 문제를 지속적인 중재와 합리적 대안 제시로 원만히 타결 지으면서 갈등 조정자 역할을 해냈다.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2010년 11월 초·중학생 무상급식 실시 합의 후 3년째 무상급식을 시행해 왔으

나 매년 분담예산에 대한 기관별 이견이 있었는데 이때마다 충북도의회가 중재로 원만히 해결됐다.

아울러,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유지를 놓고 지역 간 대립이 심화되자 토론회를 열어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의 목적과 비전을 재확인하고 성공적 건설을 위해 지역민의 의지를 모으는 계기를 마련했다.

문장대 온천개발 저지 총력

경북 상주의 문장대온천개발 저지에도 앞장섰다.

지난해 3월 문장대온천개발 저지 성명에 이어 지난 4월 6일 본회의에서 문장대 온천관광지 개발 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담은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해 중앙 부처에 강력히 항의했다.

충북도의회는 건의문에서 경북 상주시와 문장대온천개발지주조합이 개발논리를 앞세워 온천개발을 채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청정지역인 충북도 괴산의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온천 관광지 개발 사업이 백지화 될 때까지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의회운영위원회

제325회 정례회

새해 예산 및 상반기 회기일정 심의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재중)는 제325회 정례회 기간 중 3차례 운영위원회를 열어 「의회사무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도 의회사무처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2014년도 연간 회기운영 계획 협의의 건」, 「제326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7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먼저 지난해 11월 22일 실시한 제1차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처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청소년 의회교실 추진과 관련해 지역교육지원청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해 군 단위 청소년 등에게 의정활동 체험기회를 확대할 것과 의원 대외교류 시 각 상임위원장과 위원들 간 협조를 통한 대상자 선발방안을 검토·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해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했다. 이로써 2014년도 의회사무처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 81억 9,934만 1

천원 보다 5억 604만원(6.17%)이 증액된 87억 538만 1천원이다.

12월 10일 실시한 제2차 위원회의에서는 「2013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을 심사하고, 「2014년도 충청북도의회 상반기 회의운영 계획 협의의 건」을 심사하여 상반기 회기일정을 임시회 4회에 40일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했다.

의회사무처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83억 2,416만 3천원보다 1.23%인 1억 219만 6천원이 감액된 82억 2,196만 7천원으로 도의회에 대한 도민의 참여와 관심 확대를 위한 의정홍보 광고료와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인력운영비 조정분 등 2건을 심사했다.

12월 20일 열린 제3차 위원회의에서는 제326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 지난해 11월 22일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 지난해 11월 13일 자연학습원 재건축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사에 사용되고 있는 자재를 점검하고 있다.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장선배)는 제325회 정례회 기간 중 위원회 소관 도정 전반에 대한 현장 위주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먼저 지난해 11월 13일부터 22일까지는 정책기획관실 등 11개 소관부와 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자연학습원 재건축공사의 부적절한 설계변경, 충북도립대학의 교육역량 강화사업 탈락과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졸업생 취업률 등에 대해 질타하고 충북도의 호흠기질환 사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리고 청소년쉼터와 다문화가족 거점센터, 장애인보조기구센터 등 주요 사업장을 방문해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차질없는 사업추진과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당부했다.

또 아동생활시설인 충북해능보육원을 방문해 최근 도내에서 불거진 복지시설의 아동학대 사건의 원인과 대

책 등을 논의하고 시설아동의 인권문제에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1월 27일과 28일 이틀간 실시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는 신규 사업과 대규모 예산사업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소관 예산 1조 6,346억 6천 346원 중 불요불급하거나 예산액이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12건에 대하여 9억 2,300여 만원을 삭감 조치했다.

12월 11일은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도지사의 노력 의무를 명시하고 3년마다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 안전을 위한 시설장의 의무를 명시하고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한편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도지사 공약실천 관리조례안」은 일부 미흡한 내용을 수정해 가결했다. 따라서 도지사 공약사업의 선정, 심사, 관리 등 제반사항을 더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공약이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행정문화위원회

제325회 정례회

도민 삶의 질 향상 기여 근거 마련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김희수)는 제325회 정례회 중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14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심사와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예술권리선언 운용 조례안」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 의결했다.

먼저 지난해 11월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소관부서에 대한 도정 주요시책과 사업추진의 전반적인 실태 파악과 자치입법·예산·정책 등을 의안심사에 반영하기 위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철저한 사전준비와 연구로 심도 있게 질문하며 도민을 위한 정책개발을 촉구하고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이 침해되지 않도록 확정된 사업의 변경을 지양하고 부득이 변경할 경우 의회에 사전 협의와 승인을 득할 것을 주문하며 45건의 시정·개선·요구사항과 15건의 건의·촉구사항을 도출했다.

특히 예산 집행계획의 부정확성으로 인한 집행계획 변경 등에 따른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사전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2014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서는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사업비와 과다 계상된 예산을 삭감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에 예산을 수립하여 집행할 것을 제언했다.

또 문화예술회관 대상 건물 매입과 충청북도 수산업 품산업거점단지 건립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현지 확인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했다.

그리고 도민의 인권이 보호·존중되는 충북도를 만들기 위해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을 초청해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한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와 충북도의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예술 기본조례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며 충청북도 문화예술인들이 오랜 논의과정을 거쳐 의견을 모아 선언한 충북 예술권리선언을 지원하기 위한 「충청북도 예술권리선언 운용조례」를 제정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지난해 11월 15일 청주시와 괴산군 일원에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 심사를 위한 현지확인을 하고 있다.



산업경제위원회

제325회 정례회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산업 발굴 요구



▲ 지난해 11월 20일 과산 연풍세제 옛길복원 현장을 방문하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현황을 청취하고 있다.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정현)는 제325회 정례회 기간 중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였고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심사, 그리고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등을 심사하고 의결했다.

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에 국가산업단지 조성 근거 마련 촉구 건의문」을 채택해 본회의에 상정하고 협동조합 전문가와 관계자들을 초청해 「충청북도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먼저, 지난해 11월 13일부터 11월 24일까지 12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현지 확인과 간담회,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19건의 시정·개선요구사항과 19건의 촉구·건의사항을 도출했다.

이번에 도출된 주요쟁점 사항은 태양광 이미지역 사업 예산을 전액 반납한 후 사업계획을 다시 마련,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별 특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육

성, 경제자유구역청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면적에 대한 제척·대안 등을 마련, 세계유기농엑스포 정부승인 등도 주요현안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어 실시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는 뷰티·바이오 공모전 개최사업의 타당성과 경제포럼의 실용화를 강조하고, 농민단체 해외 선진지 사업의 검토를 통해 선택과 집중 할 수 있는 자구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자체보유하고 있는 식물공장 운영의 내실화와 충주 에코폴리스를 개발 사업자 유치에 최선을 할 것 등을 각각 주문하며 2014년도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집행계획을 모니터링하고, 총 23건에 3억 8,800만원을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의 개선권고에 따라 기금 융자심의위원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서도 원안 가결했다.



건설소방위원회

제325회 정례회

각종 공사현장 찾아 추진실태 점검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이광진)는 제325회 정례회 기간 중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그리고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제·개정하는 등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위원회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소관부서별 현지확인감사를 통해 현장의회 구현에 앞장섰다.

주요쟁점 사항으로는 △예산의 이월 △상습수해지구 개선사업 교량설치 △4대강사업 후속조치 △오송역세권개발사업 △오송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119지역 대통폐합 문제 등에 대해 예리한 지적과 발전적인 주문을 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16일에는 진천음성혁신도시 조성 현장, 지방도 확장·포장 공사현장 그리고 수해상습지구 개선사업 현장을 방문해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서는 △충북선

열차 영동 ↔ 단양 연장 운행 △중기지방재정계획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 인센티브 △화장품·뷰티 전시·홍보·판매관 운영 △청풍명월 21 활성화 지원 사업 △행사성 사업 과다 △긴급구조시스템 표준화 사업 등에 대해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월되는 예산이 없도록 면밀한 예산편성을 당부하는 한편 예산절감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11월 27일에는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정책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안해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하여 중앙에 건의했다.

2013년 12월 10일에는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안과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공사상(公死傷)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제정안을 심사·의결했다.



▲ 지난해 11월 13일 청원군 가마지구 사업현장을 방문해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교육위원회

제325회 정례회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새해 예산 심의



▲ 지난해 11월 20일 충청북도교육청을 방문해 화합관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상필)는 제325회 정례회 기간 중 충청북도교육청과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지난해 11월 13일부터 21일까지 7일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감사대상기관의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과 각종 언론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내용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3급 관사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등 30건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작은학교 살리기 지원방안 모색과 학교 숲 조성사업 지원 등 52건에 대하여 건의 및 주의를 촉구했다.

또한 11월 26일에는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아울러, 11월 27일 「2013~2017년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을 보고받고 29일까지 3일간에 걸쳐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예비 심사했다.

예비심사 결과 교육현장에 직접 투자되는 사업은 적극 반영하고 그 밖의 사업 중에서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과다계상된 사업과 효과가 의문시 되는 사업비는 삭감했다.

한편,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최진섭 의원(민주, 청주시 제4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고 「2013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했다.

「충청북도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학생들의 물자절약 정신 함양 및 실천을 위한 ‘교복나눔운동’을 활성화시키는데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등 제도적 뒷받침하기 위해 발의했다.

또한 교육위원회는 12월 19일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충청북도교육청 관계관과 학교 비정규직 노조 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25회 정례회

2014년 충북도 · 도교육청 예산 확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헌경)는 제325회 정례회 기간 중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4년도 세입 · 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 ·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의결했다.

지난해 12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2014년도 충청북도 세입 · 세출 예산안」을 심사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충청북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2,193억 5,522만 9천원이 증액된 총 3조 5,574억 3,602만 9천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061억 7,783만 5천원이 증액된 3조 639억 8,733만 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36억 2,757만 1천원이 증액된 4,934억 4,868만 8천원이다.

예결위는 심사를 통해 일반회계는 세입에서 총 3개 사업 4억 5,017만 7천원을 삭감, 총 예산액을 3조 639억 8,733만 9천원으로 하고 세출은 총 44개 사업 31억 2,838만 7천원을 삭감하여 세입 삭감된 어린이집 확충 사업비 등 3건 4억 5,017만 7천원을 제외한 26억 7,821만원은 예비비로 조정했다. 특별회계는 총 4건에 3억 2,680만원을 삭감하여 2014년도 충청북도 예산은 3조 5,574억 3,602만 7천원으로 확정됐다.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288억 5,061만 8천원이 증액된 총 1조 9,934억 2,831만원이다.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은 세입예산 1건에 대해 78억 503만 5천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은 홍보영상물 제작 등 25개 사업에 29억 5,579만 8천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한 결과,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예산은 1조 9,934억 2,831만원으로 확정됐다.

12월 17일 상정된 「제3회 충청북도 추경예산안」 규모는 322억 7,128만 8천원이 증액된 총 3조 6,864억 5,012만 7천원으로, 위원들은 제3회 추경이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변경사항을 최종 조정하는 정리 차원의 예산편성이라는 점과 상임위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친 사항임을 감안하여 일반회계에서 1개 사업에 2,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했고, 특별회계와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3조 6,864억 5,012만 7천원으로 확정했다.

12월 18일 실시한 제2회 교육청 추경예산안은 분평초 다목적교실 사업비 등 2건 30억 2,765만원을 삭감한 1,604억 6,324만 1천원으로 확정했다.



▲ 지난해 12월 2일 간담회를 개최해 도지사와 교육감이 제출한 「2014년도 세입 ·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현장중심 의정을 펼치겠습니다

제325회 정례회

2013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3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 심의·의결을 받고자 함

도지사 공약실천 관리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도지사 선거공약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최병윤 의원)

- 낮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장시간의 근무 등 열악한 업무환경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이광진 의원)

- 충청북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산하단체, 도에서 출자·출연한 공공기관의 장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과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위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 내 중소기업체 보호 및 양질의 시공 품질을 확보하고자 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에 국가산업단지 조성 근거 마련 촉구 건의안(제안자 : 산업경제위원장)

-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벨트위원회를 열어 기능지구 활성화 대책을 포함한 '과학벨트 기본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하였음
- 미래부는 위원회에 변경안을 올렸으나 변경안에 있던 '기능지구 국가산업단지 조성 근거'를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음
-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기본계획에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명시되고 관련 법령의 개정, 예산증액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고자 함

충청북도청사 부설 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김봉희 의원)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0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등의 주차로 감면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임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직종개편과 관련하여 위임된 전보권 및 임용권 관련 변경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김형근 의원)

- 도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성과 기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만들며, 실질적으로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충청북도 예술권리선언 운용조례안(대표발의 : 정지숙 의원)

- 충청북도 내 문화예술계의 뜻을 모아 2013년 11월 18일 충청북도의 문화예술인들이 선언한 충청북도 예술권리선언의 정신을 반영하여,
- 도정의 모든 분야에서 도민의 예술에 대한 권리를 구현하고 문화예술이 만개할 수 있는 충청북도를 만들기 위해 충청북도 예술권리선언 운용조례를 제정 하는 것임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김영주 의원)

- 충청북도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중 일부내용이 2003년 개정당시 여건에 맞게 규정되어 있어 최근 보건의료관련 국책기관 이전, 오송생명과학단지 준공,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바이오 관련 국제행사 개최 등의 주변여건을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심기보 의원)

-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 및 도민참여 연구회 위원 수당과 여비 등 실비보상을 위한 근거조항 마련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정지숙 의원)

- 충북도립교향악단의 발전을 위하여 능력과 실력있는 예술감독을 채용하기 위하여 예술감독의 겸직금지조항을 삭제하고, 비상임단원의 상임단원화에 따라 비상임단원을 삭제하고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 권기수 의원)

- 도내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설치·운용중인 조례를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용어를 개정함은 물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용자심의위원회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임현경 의원)

-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내 사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충청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조례안(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신성장 동력산업인 태양광산업을 충청북도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도민들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김재중 의원)

- 「하천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점용료 등의 조정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추어 도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충청북도 공사상(公死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 임현경 의원)

- 각종 재난 및 소방활동 중 순직하거나 부상을 입은 충청북도 소속 소방공무원과 유가족 및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제천 영어체험센터 설립 계획안(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 초·중등 학생 및 교원들의 체험중심 영어교육 활동과 연수를 통하여 의사소통능력을 신장시키고, 국제화를 선도하는 인재육성을 위하여 제천영어체험센터를 설립하고자 함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중소기업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그 시설(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및 위탁관리 시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부담완화 및 판매장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 2011. 7. 29. 「공직자윤리법」개정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정수가 9명에서 11명으로 변경되고, 취업승인 및 업무취급 승인 등에 대한 규정이 일부개정·신설됨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내용을 보완하고자 함.

2014년도 공립(단설)유치원 설립계획안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 누리과정 도입(확대) 등 최근 유아교육 여건 변화에 따른 학부모의 공립유치원 교육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공립(단설)유치원 기능확대를 통한 취원을 및 교육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가칭)충주예성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함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공무원 직종개편을 위하여 기능직·별정직·계약직을 직렬 또는 직위에 맞게 일반직 등으로 전환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 판로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 201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 등 공유재산의 취득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을 수립함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임현 의원)

- 2013년 4월 갈등관리업무가 감사관에서 자치행정과로 이관됨에 따라 주무부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라 주민부담 완화를 위하여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인하하고, 교환차금의 분할납부 및 이자율을 규정하며, 폐교재산이 소재한 지역의 주민이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를 규정함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임

충청북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김영주 의원)

-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발생지역의 지진재해 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진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향후 지진으로 인한 재해의 경감목적으로 충청북도 내 지진피해 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 2013년 12월 12일자로 기능직과 계약직의 폐지 및 일반직으로의 통합 등 지방공무원 직종이 개편됨에 따라 교육장, 학교장 및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등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가칭)제천기숙형중학교 외 2교 설립계획안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 농촌지역 학생의 도시이탈 학생 방지 및 농촌학교 활성화를 통한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와 돌봄 기능 강화를 위하여 가칭 제천기숙형중학교 외 2교 설립하고자 함

201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함

충청북도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최진섭 의원)

-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들의 물자절약 정신의 함양과 실천을 생활화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교복나눔운동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 및 위탁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라 기능직 폐지 및 전문경력관 신설을 포함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015년도 공립(단설)유치원 설립계획안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 누리과정 도입(확대) 등 최근 유아교육 여건 변화에 따른 학부모의 공립유치원 교육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공립(단설)유치원 기능확대를 통한 취원을 및 교육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가칭)울량유치원 및 (가칭)진천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안자 :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에서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본회의 의결로 해당 기관에 이송하여 시정·건의 하고자 함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건의안
(제안자 : 건설소방위원회)

-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추진은 지방의 붕괴를 촉발시켜 국가 균형발전의 역행과 지역 불균형을 초래할 것으로 규제완화 정책 중단을 중앙에 촉구하기 위함

도정 주요 핵심사업 달성여부 집중 질의

김양희 의원 (정책복지위원회)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관련

[질문] 도지사 임기가 6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도정지표인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보는 지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바이오와 관련하여 도민들이 의심을 갖게 되는 가장 큰 계기는 오송역세권 개발 포기인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은 우리 충북에서 이제 막 시작을 해서 현재는 미완의 단계지만 그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해서 기반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를 비롯하여 제천의 한방 바이오, 옥천의 의료기기, 괴산의 유기농 바이오의 사각벨트를 구성하여 우리 도의 전체적인 바이오밸리를 구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오송 제2산업단지 100만평은 해결을 하고 있는데 역세권 부분만은 여러 가지 상황과 역부족으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어 도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산업 관련

[질문] 태양광산업은 굉장히 중대한 자원이라고 생각하지만 세계적인 태양광 선진국 독일과 중국의 사례 등 국제적인 정세를 볼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일반주택이나 복지시설,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 외에 산업화와 결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우리 도내에는 61개의 태양광 업체가 있으며 우리나라 태양광 업체의 60% 정도가 충북에 몰려 있어 태양광산업을 육성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 도에 주어진 의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중앙부처와 열심히 노력해서 태양광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여러 대책을 협의해 나가고 있으며 태양광 가로등이나 태양전지기술 지원센터 설립 등 혁신도시를 태양의 도시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 도의회와 도 교육청간의 갈등에 관한 부분이 많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도지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을 내년 도지사 선거의 가장 유력한 대항마라고 여기는 정치적인 사고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충북도와 도 교육청간의 갈등은 없다고 생각하며 의원에서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시는 게 아닌 가 판단됩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 관련

[질문] 충북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하여 충주 에코폴리스 지역은 소음문제, 고도제한, 접도구역 등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것은 충북발전연구원의 부실한 연구용역과도 관련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충주 에코폴리스 문제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갈 것이고 국방부와는 아직 완전히 해결이 안 된 상태이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할 것입니다.

또한 2011년 2월 충주시에서 충주 에코폴리스구역을 충북경제자유구역에 포함시켜 달라고 하는 강력한 요청이 왔는데 당시 3월까지 요청서를 중앙부처에 제출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매우 급박했습니다.

충주지역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1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했지만 시간이 부족하여 일단 충주를 포함시켜서 지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결정을 했습니다.

당시 소음피해 등 일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지했으나 나중에 국방부와 협의할 문제라고 파악했습니다.

[질문] 충주에코폴리스 문제를 야기시킨 충북발전연구원의 연구책임자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연구의 잘못된 점에 대해 방송 인터뷰를 한 다른 연구원은 중징계를 받았습니까.

충북발전연구원이 충북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북도의 발전에 발목을 잡는다는 여론이 비등한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내용을 확인한 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충호 시대 지역발전 구상 대책수립 촉구

장선배 의원 (정책복지위원회)



충청권 지역발전 구상 관련

[질문] 충청권의 인구성장에 걸맞게 충청권과 충북의 입지를 넓혀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영충호 시대를 맞아 충청권 지역발전 구상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충청권의 정치적인 영향력 확대를 위해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문제와 영충호 범국민협의체 설립 및 영충호 상생발전 방안 수립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청주공항, 오송역, 동서 5축 고속도로, 충청내륙화 고속도로 등 충청권 발전의 핵심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어 서해안 시대를 견인하는 동서축 발전의 핵심지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질문] 충북 이외에 충청권 3개 시·도는 영충호 시대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공고한 협력체계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충청권 행정협의회 등 공식적인 협력기구는 물론 경제포럼, 테크노파크, 발전연구원 등 4개 시·도 싱크탱크를 활용하여 충청권이 영충호 시대의 리더로 윈·윈할 수 있는 공동발전과제 발굴 등을 적극 제안해 나가겠습니다.

취득세 영구인하 대책에 대해

[질문] 정부의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인건비, 운영비 부담 요구와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지방소비세 인상 방침 등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도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인건비와 운영비 전액 국비 부담을 관철시키기 위해 지난 12월 9일 보건복지부 방문, 12월 12일 종합계획안 수정요청 공문 발송 등을 통해 제2차 충북단지 종합계획안에 기관별 투자계획이 삭제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액 국비 부담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4년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우리 도 세입 감소예상액은 571억원이고 지방소비세 6% 인상을 통해 우리 도에

배분될 예상액은 600억원 정도로 우리 도 세입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상보육·기초연금 관련

[질문] 영유아 무상보육비와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 증가에 따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고 어떤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영유아 보육 국고보조율 10% 인상안이 확정되면 현재 국회 계류중인 20% 인상안보다 우리 도의 부담이 209억원 정도 늘어날 전망이므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의원 간담회 및 시·도지사 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초연금 시행 시 198억원의 지방비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기초연금 사업비 전액 국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계류중인 기초연금 법안이 전액 국비지원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도민 복지 만족도 관련

[질문] 도민의 복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과 우리 도의회에서 행복정책 토론회 등을 통해 제안한 행복정책 방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내년도 사업 등에 많이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우리 도의 복지예산이 2010년에 비해 2013년에 43%가 증가되는 등 함께하는 복지실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복지체감도 조사연구를 실시하여 결과를 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도의회에서 제안한 행복정책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유니버설 디자인 체험센터 개관,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운영, 문화예술 플랫폼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고 2014년부터는 자연학습원을 전 도민 행복교육, 힐링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확대하여 행복교육원의 취지를 살려나갈 것입니다.



의정 활동 이모저모



◀ 정책복지위원회가 지난해 11월 18일 충청북도 보조기구센터(청주 신봉동)를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보조기구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건설소방위원회가 지난해 11월 14일 ▶ 혁신도시 조성현장을 방문해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향후 정주여건 조성과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차질이 없는 준비를 당부했다.



◀ 건설소방위원회가 지난해 11월 13일 청원군에 위치한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사업추진현장을 방문해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난해 11월 20일 ▶ 경제자유구역청 충주지청 에코폴리스 현장을 방문하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현황을 청취하고 있다.





▲ 정책복지위원회가 지난해 11월 13일 다문화가족지원 거점센터 (과산 과산읍)를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센터 운영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



▲ 청원청주통합지원특별위원회가 지난해 12월 9일 청원청주통합 추진지원단의 통합청주시 출범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 충청북도의회가 지난해 12월 5일 필리핀 태풍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해 도의원들이 모금한 성금을 전달했다.



▲ 김광수 의장은 지난해 11월 7일 사랑의 연탄 나르기 행사에 참석해 연탄을 배달하고 있다.

▼ 충청북도의회가 지난해 12월 20일 제325회 정례회를 마치고 전체 도의원, 이시종 도지사, 이기용 교육감 등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폐회연을 갖고 2013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 했다.





최 병 윤 의원
(정책복지위원회)

“사회복지 종사자의 행복은 곧 복지 대상자의 행복”

우리나라는 성장일변도의 정책을 통해 경제적 측면에서 선진국 문턱에 진입했다.

2013년도 1인당국민소득(GNI)은 24,044달러로 사상 최고치가 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경제성장 수준과는 달리 OECD 발표에 따르면, 2013년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수준은 36개국 중 27위에 그쳤다. 게다가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은 세계 1위,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는 3년 연속 OECD 최하위 등 창피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국민 행복도가 높은 선진국들을 보면 사회적 문제해결과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 복지비 지출을 GDP대비 20% 이상으로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복지비용 지출 수준은 불과 7%대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을 맴돌고 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성장의 효과를 복지 지출을 통해 국민들에게 적절히 분배하는 국민복지 중심의 새로운 체계로의 전환이 절실하다.

이 전환의 시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복지 전달체계의 최일선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다.

그런데 사회복지사들의 현실은 어떠한가?

지난해 초 3명의 사회복지사들이 연이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과연 이분들을 죽음이라는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간 이유는 무엇인가?

국가인권위의 ‘사회복지사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의 평균임금은 월 196만 4천원으로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 243만원보다도 낮았다. 또한 평균 노

동시간은 주당 50시간이며, 정기적 유급휴가조차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20.7%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은 사회복지사들의 높은 이직률로 이어지고 있다.

사회복지사들의 과중한 업무와 낮은 처우는 오래전부터 사회문제로 제기되어 왔지만, 사회복지사들을 희생과 봉사의 직업으로만 여겨온 후진적 관행으로 인해 아직도 열악한 근무여건에 시달리고 있다.

사회복지사들이 겪는 업무적 고통은 사기저하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즉 그들의 불만이 복지서비스를 받는 고객들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것이다. 사회복지사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사회복지사들의 행복은 곧 복지 대상자의 행복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2012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시행되었고 본 의원의 발의로 충청북도에 서도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지만 실질적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사회복지사는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우리의 복지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전문직업인이다. 더 이상 봉사와 헌신이라는 대의 아래 사회복지사들에게 무한 희생만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좋은 복지정책도 전달 체계가 무너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회복지사 근무환경 개선과 처우개선을 위해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할 것이다.



도의회에 첫 출근하던 그날을 생각하며...



김 영 주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2014년이 갑오년 새해가 시작되고 첫 번째로 발행되는 이번 호 의회소식지 ‘충북의정’에 게재할 의정일기를 쓰려고 무작정 노트북을 켜고 문서편집기를 열었다.

무슨 주제로 글을 쓸까 생각하다 문득 제9대 의회가 개원하면서 신설한 ‘의정일기’ 코너에 첫 번째로 글을 썼던 기억이 났다.

바로 충북도의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그 동안 발행된 간행물을 살펴보았다.

홈페이지에는 뷰어 기능이 잘 되어 있어 쉽게 볼 수 있었고, ‘충북의정’에는 도의회의 모든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그 가운데 2010년 11월에 발간된 제207호에 ‘첫 출근 그때의 초심으로 도민의 진정한 뜻 받들 터’라는 제목의 나의 의정일기도 실려 있었다.

새내기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의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던 그때, 낯선 경험과 고민들을 마주하면서 느낀 단상과 행정사무감사,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의정활동에 대한 각오가 담긴 글을 다시 읽어 보았다.

시간이 훌쩍 지나 어느새 임기가 마무리 되어가는 시점인지라 감회가 새로웠다.

그때 ‘의정일기’를 통해 도민께 약속드렸던 마지막 문장 ‘발로 뛰며 도민의 의견을 확인하고, 각종 자료를 머리로 분석하며, 입과 손(글)을 통해 표현하고자 한다. 이런 나의 활동이 집행부와 함께 변화를 이끌어 내어 충북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작은 기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쓰여진 문구가 새삼 부끄럽게 느껴졌다.

임기의 종반에서 ‘의정일기’를 통해 다시 한 번 반성의 시간을 가져보며 스스로에게 물어본다.

의회 첫 출근, 그때 다짐했던 초심을 잃지 않고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가?

변화를 추구하기보다 타성과 관성에 젖은 적은 없었는가?

나의 의정활동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어떠한 기여를 했는가?...

자부심과 성과도 있었으나 반성과 후회의 지점들이 많은 듯하다.

인생은 후회의 연속이라는 말도 있지만 역설적으로 후회는 내일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게 한다는 말로 위안해 본다.

주민대표인 도의원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후회는 그만큼 도민의 이익이 후퇴되었다고 생각하기에 더욱 절실하게 반성해 본다.

오는 6월에는 지방선거가 있다.

의원에게는 끝과 또 다른 시작이 교차하는 한해이다.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다시 선택을 받고자 한다면 교만한 것이다.

임기는 임기이고 선거는 선거이다. 4년 동안 의정활동을 잘하라고 선택해 준 주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를 다하기 위해 다시 신발 끈을 고쳐 매본다.

끝으로 후반기 도의회 간행물편집위원장을 맡고 있는 의원으로서 편집위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자 한다.

예리한 지적과 현실성 있는 조언으로 도의회 의정활동 사항을 담아내는 ‘충북의정’이 도민께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준 장선배 의원, 송창희 중부매일 뉴미디어 국장, 충청대 시각디자인학과 조성옥 교수, 조성민 정일품 기획사 대표와 이병재 의회 총무담당관, 이흥신 운영수석전문위원 등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충북도의회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 인터넷생중계 : <http://assembtv.cb21.net>

● 트위터 : <http://twitter.com/#!/chungbuk/assem>

●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cbassembly>

청원안내

■ 청원서 제출방법

- 도의회에 청원을 하려면 도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 제출
- 청원서에는 청원인 주소·성명(날인), 서명(날인)
- 청원서에는 청원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음

-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청원 소개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청원서 문의

- 의사담당관실 : 043)220-5151~5155

민원안내

■ 진정서 등 제출

- 진정서는 청원서 외에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인터넷 민원 등을 말함
- 진정서는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진정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

■ 제출방법

- 우편 : 360-76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의사담당관실
- 인터넷 : <http://assemb.cb21.net>의 「진정/민원」에 글쓰기
- 팩 스 : 043) 220-5159

방청안내

■ 방청권 교부

- 의회사무처에서 교부받은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을 기재하여 신청
- 방청시 방청인이 지켜야 할 사항 준수

■ 방청권 신청

- 의사담당관실 : 043) 220-5155



충청북도의회

<http://assemb.cb21.net>